Japan

오사카지사

재기 넘치는 신상품 아이디어로 소비자 이목 집중

상식 뒤집는 새로운 식품들 화제

요즘 일본식품업계에는 상식을 뒤집는 신선한 아이디어상품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손에 음식물을 묻히지 않고 짜 먹는 삼각김밥부터,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마시는 카레 등이 그 주인공인데,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며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10초 만에 먹을 수 있는 짜 먹는 삼각김밥

일본의 식품회사 ㈜요코오데일리푸즈가 짜 먹는 파우치 삼각김밥을 출시했다. 쌀과 매실과육, 가다랑어포 등을 넣은 젤 형태를 파우치 포장하여 씹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제품명이 '마시는 삼각김밥'이다. 제품 1개에 양상추 1개 분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칼로리는 280kcal다. 파우치 포장으로 손에 음식물을 묻히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다른 일을 해야 하거나,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함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또한 소비기한이 360일로 비상식량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SNS 등에는 최단 10초 만에 식사를 끝낼 수 있는 상품이 등장했다며, '10초 밥'이라는 키워드로 화제가 되었다. 당초 10만 개 출하를 예상했으나, 계획 대비 8배인 80만 개를 출하했다.

반전음료, 마시는 카레

삼각김밥에 이어 먹는 카레를 마시는 제품으로 개발한 캔 용기 카레가 작년 10월에 발매되었다. 해당 제품은 발매 2주 만에 매진, 12월의 추가 발매분도 매진을 기록했으며 제조사인 ㈜펠리시모는 올해 4월에도 수량한정으로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슬라이스 치즈 형태의 마요네즈 조미료 시트

언뜻 슬라이스 치즈로 보이는 '슬라이스 키친'은 식품회사 브루봉이 출시한 조미료 시트 시리즈다. 마요네즈에 바질과 참치를 넣은 시트 형태의 조미료로 하나의 제품에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으며, 요리에 추가했을 때 그럴듯한 비주얼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과 손님 초대용 요리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일본에서는 포장을 뜯어 접시 위에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 '그대로 국수', 단백질을 보급할 수 있는 '요쿠르트 음료', 냉동하면 저칼로리 두유아이스로 변신하는 '두유 음료' 등 스피디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 새로운 맛 상품, 두 가지 이상의 식품의 콜라보레이션 등 기발한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Key Point

흥미로운 상품에 별점주는 소비자 취향 저격

- 초간편 식단을 원하지만 그럴 듯한 식사의 형태도 원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상품들이 주를 이루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미와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될수록 이와 같은 상품들이 더욱 흥미를 끌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마시는 죽 제품, 짜먹는 고구마 등은 간편함과 동시에 기발한 제품으로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흔한 방식으로 제조된 식품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상품을 개발 한다면 일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마시는 삼각김밥 |

180g/120엔(약 1,243원)

| 마시는 카레 CARRY CURRY |

170g/3캔 1세트 1,140엔(약 11,804원)

| 슬라이스키친 |

64g(4매)*12봉지/2,400엔(약 25,000원)